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한 정책 공유·모색

전주시, 분야별 전문가들과 '하반기 경제활성화 정책 마련 워크숍' 개최

전주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최한 워크숍에서 전북형 메가시티로 초광역 단일 경제권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28일 전주혁신창업허브 첨단누리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유남희 전북대학교 사회경제연구원장, 김흥건 전주대학교 탄소연구소장, 엄수원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회장, 이복수 중소기업인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하반기 경제활성화 정책 마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한 제언을 듣고 전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공유하는 한편 집단면역 달성 후 소비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첫 발제에 나선 유남희 전북대학교 사회경제연구원장은 '청년협동조합 청년창업대 강화, 전주·원주 경제 정책 협치'라는 주제로 전북대학교 사회경제계 ROC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ROC를 통한 청년협동조합 활성화 운영성과를 발표하고, 전주·원주 경제 정책 협치의 필요성 및 이를 위한 경제협치 TF 구성 등을 제안했다.

김흥건 전주대학교 탄소연구소장은 수소·탄소·드론산업 활성화 방안을



전주시는 28일 전주혁신창업허브 첨단누리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유남희 전북대학교 사회경제연구원장, 김흥건 전주대학교 탄소연구소장, 엄수원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회장, 이복수 중소기업인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하반기 경제활성화 정책 마련 워크숍'을 개최했다.

주목했다. 구체적인 해법으로 ▲그린 수소 거점화 및 수소경제 선도 ▲탄소 산업 컨트롤타워 구축 및 탄소산업 활성화 ▲드론 메가시티 조성 및 드론 월드컵 개최 등을 꼽았다. 김 소장은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그린수소의 상용화를 위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수소차와 충전소 보급을 동시에 확충하고 산학연 협력 연계를 통한 수소기업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산업 인력양성체

계 구축을 통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야간 순찰, 드론 택시 등 드론산업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엄수원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장은 '전북형 메가시티, 유동인구 창출, 도시성장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엄 학회장은 "전국적으로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생활·경제·문화·행정공동체를 형성해 전북권이 함께 생활하고 성장하는 초광역 단일 경제권이 구축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전주시 주택보급률은 113% 정도이지만 이 중 시민의 약 39%가 무주택자로,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정책이 중요하다"면서 "중산층을 위한 넓은 평형대의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정책발표에서는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부서장들이 각각 하반기 경제활성화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3대 신산업 육성 ▲착한소비 캠페인 및 e-커머스 활용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국내외 제품박람회 지원을 통한 기업 판로 확보 추진 ▲지역기반 디지털 경제체계 구축 등이 소개됐다.

워크숍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은 집단면역 달성 후 소비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으며, 기업 대표들은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향후 시는 이날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들과 발표된 예정인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바탕으로 전주시 하반기 경제활성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의 미래를 책임질 수소·탄소·드론·금융산업 등 4대 신성장산업과 함께 정부 최대 역점사업인 디지털 뉴딜사업도 전주답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모든 산업 분야의 디지털화를 통해 차별화된 전주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기자



서울국제관광박람회서 최우수 인기부스상

전주시, 이벤트·포토존·굿즈 등으로 방문객 시선 사로잡아

전주시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1년 제36회 서울국제관광박람회'에서 최우수 인기부스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코트리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한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상공회의소와 관광청, 지자체 등 500여 개 부스가 운영됐다.

박람회에서는 시는 키오스크를 통해 전주의 주전부리를 고르면 여행 취향을 알려주는 독특한 이벤트와 포토존, 여름휴가 방법이 담긴 팸플릿, 관광거점도시 전주 B를 활용한 굿즈 등을 통해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전라강영과 팔복예술공장, 덕진공원, 혁신도시 기지제 등 다양한 여행지가 관심을 끌었다.

특히 관광거점도시 전주 BI인 'YOUR TASTE JEONJU'를 활용해 정한 여름휴가 키워드인 T.A.S.T.E 홍보 전력이 적중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TASTE는 T(Take a photo, 예쁜

사진 찍어볼까), A(Activity, 한바탕 놀아볼까), S(Stress Relief, 휴식시간 가져볼까), T(Take a walk, 사랑하는 사람과 산책해 볼까), E(EAT, 맛집 투어 해볼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밖에 시는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관광호텔 등 지역업체와 함께 하는 마케팅에도 힘을 썼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주한옥마을을 넘어 관광거점도시의 새로운 모습을 포함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노력했다"면서 "코로나19가 다소 완화되고 관광을 앞둔 시점에서 잠재적인 방문객들에게 전주가 전주한옥마을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트렌디한 체험과 볼거리가 가득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순창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1 전북트래블마트'에서도 시는 B2B 상담 우수 운영기관으로 인증받았다.

/김윤상기자

전주시-KT링크스 호남본부 전기이륜차 충전 인프라 확충 협력

공중전화부스가 전기이륜차의 교환형 배터리 충전소로 변신한다.

전주시와 KT링크스(주) 호남본부(본부장 장영민)는 지난 25일 전주시청에서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공유 배터리 충전부스 설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노후 공중전화부스를 교환형 공유배터리 충전스테이션으로 개조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이륜차의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KT링크스(주) 호남본부는 올 연말까지 노송동과 금안동에 공유배터리 충전소 2곳을 구축해 시범운영하고, 오는 2023년까지 총 20개소를 조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도로점용 허가 용도 변경 등 행정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야호학교, 하반기 프로그램 확대

삼삼오오 별별궁리·3D 프린팅 등 6개 프로그램 추가 운영

청소년들의 지역 자긍심과 자기주도 역량을 높이는 '전주시립 야호학교'와 창의교육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야호 아카데미 강연회' 등을 추진한 전주시 야호학교(교장 장경수)가 삼삼오오 별별궁리 등 하반기 프로그램을 대거 확대한다.

전주시 야호학교는 올 연말까지 상반기 추진 프로그램 6개에 삼삼오오 별별궁리 등 6개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하반기에 추가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삼삼오오 별별궁리 ▲미디어 리터러시 교실 ▲예술비상 프로젝트 ▲3D 프린팅 ▲탄소 프로젝트 등이다.

대표적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방과 후 시간에

▲스스로 디자인하는 여행 ▲목공, 연기, 춤 등 풀입집중 프로젝트 ▲자기탐구·마을 프로젝트 ▲자기주도학습(학습멘토링) ▲보충학습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급식과 귀가차량이 무료로 지원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경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볼 수 있다.

또 삼삼오오 별별궁리는 야호학교 공간을 활용해 디지털, 요리, 책읽기, 영화감상, 목공, 댄스, 여행, 미디어, 뮤지컬, 밴드 등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추진되며, 미래먹거리인 탄소소재와 3D 프린팅 기술, 공미술 등을 체험하는 활동도 진행된다.

이에 앞서 야호학교는 올해 ▲로컬

프로젝트 ▲전주시립 야호학교 ▲야미 프로젝트 ▲드론축구 프로젝트 ▲공간구성 프로젝트 ▲야호 아카데미 등 6개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664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인후동에 개관한 전주시 야호학교는 건물 내부공간 설계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켜 조성됐다. 그 결과 교육청 관계자와 충북 옥천 등 타 지역 관계자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야호학교는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청소년들의 만남과 소통, 문화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또 지역사회 청소년 거점시설로서 지역사회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창의교육 인식 제고가 확대될 수 있는 교육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11월까지 아름다운 한옥 정원서 콘서트 열린다

고즈넉한 밤에 전주한옥마을 내 '한옥의 별'을 방문하면 조선팝, 인디음악, 클래식 등 아름다운 공연을 만나 볼 수 있다.

전주시는 오는 11월까지 한옥마을 공식 인증업소인 '한옥의 별' 등에서 총 100여 회에 걸쳐 '한옥 정원 콘서트'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한옥의 별'은 한옥마을 내 한옥체험업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소비자의 평가와 인증 과정을 거쳐 지난해 80여 곳이 선정됐다.

아름다운 한옥 정원에서 펼쳐지는 이 콘서트는 지난해 여름 여행객과 공연자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여 올해에는 기간이 4배 정도 늘어났다. 공연에는 슬로우진, 김은총 솔로 등

실력과 인디밴드 공연팀과 율향, 문화포럼 나니레, 이희정 밴드가 참여해 전통민요에서부터 퓨전 국악, 국악트롯, 국악가요, 판소리 등 전통을 기반으로 현대적 감각을 입힌 음악을 선보이게 된다.

이 콘서트는 사전예약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전주한옥마을 홈페이지(hanok.jeonju.go.kr)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한옥 정원 콘서트를 통해 여행객들에게 아름다운 정원을 보유한 한옥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한옥마을에서 하루 더 머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